

## SF의 냉전적 상상력 - 미국과 소련의 체제경쟁과 문학전쟁 -

최진석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 ◆ 국문초록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 최대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과 소련은 냉전체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는 다만 군사적이고 정치·경제적인 경쟁관계만은 아니었다. 1957년 스푸트니크의 발사로 촉발된 체제경쟁은 전방에서의 물리적 충돌로 드러나는 열전이 아니라 후방에서 문화적 프로파간다와 대중선동, 이데올로기 교육 등이 총동원된 '총력적 냉전'이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은 각종 정보기관과 문화적 기관 등을 동원해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공세를 퍼부었으며, 문학예술 또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특히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미래 사회를 투영하려던 공상과학(SF) 소설의 경우, 실제로는 냉전의 현실을 반영하고 형성하는 작품들로 나타났는데, 외계인의 침략을 다룬 작품들이 바로 그러했다. 지구인 대 외계인의 구도로 만들어진 냉전 시대의 문학창작은 대부분 선과 악의 이분법에 근거했으며, 양측의 격렬한 대립과 투쟁을 통해 지구인이 승리하리라는 시나리오를 이어받았다. 물론 그것은 냉전의 상대에 대한 문화적 공세를 위장하고 있었던 바, 휴머니즘에 입각한 외계인의 격되는 적의 비인간성과 자기의 인간성과 정당성을 선언하는 프로파간다에 다를 아니었다. 그러나 냉전기 SF 작품에서 휴머니즘의 승리만을 본다면, 우리는 문학과 정치가 마주한 중요한 입지를 간과하게 된다. 휴머니즘에 대한 강조는 현실에 대한 문학의 무능을 은폐할 구실이 되는 탓이다. 오히려 그런 휴머니즘을 전도시킴으로써 냉전 문화에 감추어진 적대의 현실이란 무엇인지, 거기서 작동하는 구조적 폭력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냉전시대의 문학전쟁은 전쟁의 문학적 수사(무)의식적으로 서사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냉전, 문학전쟁, SF, 신체 강탈자, 노변의 피크닉, 정치적 무의식, 휴머니즘

## 1. 냉전과 문화, 무의식의 문화정치학

자신의 정체성을 ‘소비에트인’으로 지녀보았던 러시아인들 가운데는 자기 나라가 21세기의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적이 있었고, 심지어 미국을 위협하던 선진대국이었던 시절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 같은 자부심의 원천에는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세계를 호령하던 ‘냉전의 추억’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그것은 단지 ‘잘 나가던 시절’에 대한 낭만적이고 과장 섞인 회고에 머물지 않고, 미국에 맞서 세계사적 대립과 긴장을 유지시켰던 강대국 소련의 역사와 맞물린 감정인 것이다.

냉전은 전 세계가 두 패로 나뉘어 극한의 대결을 벌였던 이례적 시대였다. 물론 제3세계 같은 ‘비동맹 국가’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들은 미소 양국 가운데 어느 한 편에 더 무게를 실어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최대한 확보하려 했기에 근본적으로 냉전의 역학이라는 전 세계적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세계적 분할의 주도국은 미국과 소련이었고, 양국은 총력전의 형태로 정치·경제·군사·외교의 모든 방면에서 경쟁을 벌였다.<sup>1)</sup> 전술했듯, 과학기술과 맞물린 군사력 경쟁은 냉전의 가시적 외관을 형성하는 주요 무대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골적이고 과시적인 대립과 더불어 문화적 경쟁 역시 냉전의 중요한 전장의 하나로서 부상하고 있었다. 만일 전쟁이 인류사를 관통하는 일관된 위협이었다면, 그것의 20세기적 특징은 그러한 위기가 문화적 형식으로 포장되고 전시되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전쟁의 실제 위협과는 별개로 문학이나 영화 등의 문화적 형식이 대중의 감수성에 적대의 감각을 심어놓았던 것이다.

‘냉전 문화’로 부를 만한 간접적 전쟁의 양상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량살상 무기를 동원하는 열전(熱戰)과는 상이한 형식을 취하되, 대중의 심성(mentality)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위기와 공포, 자기검열의 무의식적 작용을 일으키는 강력한 견인의 힘이 냉전 문화에 있었기 때문이다.<sup>2)</sup> 미소 양국은 CIA나 KGB 같은 첩보 및 정보기관을 이용해 각종 암살

1) 베르트 슈퇴버,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1945~1991』, 최승완 옮김, 역사비평사, 2008, 16쪽.

과 테러를 일삼는 한편, 문화예술에 대한 은밀한 형태의 공작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선전과 교란을 펼치기도 했다. 영화와 문학은 그 같은 냉전 권력의 발현 형식으로 자주 거론되었던 바,<sup>3)</sup> 이미지와 문자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장르는 대중의 심성에 냉전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으로 각인하는 매체로서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문화적 매체가 단지 이데올로기적 체제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냉전의 후방에서 벌어진 전쟁을 서술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문화적 매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주기도 하며, 이 같은 상호작용은 (무)의식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특수한 타협적 형성물을 만드는 까닭이다. 정치와 문화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을 넘어서 양자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되돌려 받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기획을 염두에 두며 이 글은 냉전 시대의 SF 문학 작품을 재독해함으로써 정치와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유의 폭과 깊이를 다시 가늠해 보고자 한다.

## 2. 미·소의 체제경쟁과 대중의 감응

제2차 세계대전의 최대 승전국으로서, 또한 전후 유일무이한 원폭 보유국으로서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비록 한국전쟁을 통해 소

2) Douglas Field(ed), *American Cold War Culture*,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5; 기시 도시히코 외, 『냉전문화와 아시아』, 김려실 옮김, 소명출판, 2012; Catherine Gunther Kodat, *Don't Act, Just Dance: The Metapolitics of Cold War Culture*, Rutgers University Press, 2015.

3)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가 1958년 노벨문학상에 선정되었던 배후에 CIA의 반공주의 문화정책이 있었음은 공인된 사실이다. “During Cold War, CIA used ‘Doctor Zhivago’ as a tool to undermine Soviet Union,” *The Washington Post*, 2014년 4월 5일. <http://apps.washingtonpost.com/g/page/world/the-cia-and-doctor-zhivago-dispatch-from-jan-2-1958/921/> (검색일: 2019.06.25.) 그 외에도 냉전과 국가정책, 특수기관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프랜시스 스토너 손더스,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유광태 외 옮김, 그린비, 2016; 마루카와 데쓰시, 『냉전 문화론』, 장세진 옮김, 너머북스, 2010 등을 보라.

련과 간접적인 대결을 벌이긴 했어도, 1950년대의 미국은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맞서 겨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대전기 서방국가들 가운데 유럽과 태평양의 이중전선을 유일하게 지탱했던 막강한 경제력 및 공업 생산력은 미국적 자부심의 원천이었다.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는 그와 같은 미국의 힘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구호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는 1957년 10월 4일 소련으로부터 들려온 뉴스 하나로 인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만다. 미국의 팽창에 잔뜩 긴장하고 경계하던 소련은 과학기술 개발에 열을 올렸고, 공산권 특유의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집중과 고도화가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낸 결과 마침내 스푸트니크라 명명된 인공위성을 우주로 쏘아올렸던 것이다. ‘스푸트니크 쇼크’라 명명된 미국의 악몽이 시작된 사건이었다. 당연하게도, 그것의 1차적 용도는 군사적인 것이었기에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라는 스푸트니크의 성공은 냉전과 우주경쟁이 가시적으로 표명된 첫 번째 단추였다고 할 만하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스푸트니크 쇼크는 단지 패자의 지위에 등극한 미국의 자존심이 상처입은 사건만은 아니었다. 1949년 원폭실험에 성공한 소련은 1952년에는 수소폭탄 실험에도 성공함으로써 더 이상 미국만이 유일하게 절대적 공격력을 보유한 나라가 아님을 입증했다.<sup>4)</sup> 소련이 아쉬웠던 것은 그런 무기를 미국에 투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었는데, 스푸트니크는 그러한 발사체를 마침내 갖게 되었음을 만천하에 선언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역설적이게도 스푸트니크가 몰고 온 후폭풍은 전후 방만하게 흘러져 있던 미국의 군수체



4) 오드라 울프, 『냉전의 과학』, 김명진 외 옮김, 궁리, 2017, 49-50쪽.

계와 연구개발 체제 등을 통합하고 약진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다. 이렇게 양국은 서로의 이미지를 과장될 부풀리고, 그 이미지에 놀라 거꾸로 자신의 크기를 불리는 데 열중하는 ‘게임’을 벌이게 된다. 냉전기의 군사경쟁은 적에 대한 공포와 더불어 이를 이용해 내부의 결속과 단합을 도모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유인된 것이었다. 가령 스푸트니크 이후 미소 양국이 벌였던 ICBM 개발과 축적은 ‘미사일 갭’을 적극 활용한 전형적인 내부 정치의 소산이었다. 상대보다 우리 측이 약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만들고 ‘더욱 파괴적으로’ 개량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sup>5)</sup>

타자의 이미지를 위협적인 대상으로 이용해 내부를 구성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물론 매카시즘이다(1950-54).<sup>6)</sup> 잘 알려진 대로, ‘내부의 적’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활용해 반대파와 불만세력을 축출하려던 이 시도는 단지 정치권이나 학계, 혹은 공적인 ‘셀럽’ 사이에서 벌어진 파문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일반 대중 사이에 널리 유포된 감정 즉 ‘우리 내부의 적’에 대한 불안과 공포야말로 매카시즘과 이후 냉전 문화의 핵심을 차지한다. 그것은 인지적으로 교육되기보다 일상의 감수성을 통해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전염되고 확산되는 감응(affect)으로 특징지어진다. 불분명하지만 실재하는 정서의 공유로서 감응이라는 현상은 냉전이 가시적이고 의식적인 이데올로기 전쟁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sup>7)</sup> 이와 같이 냉전 문화는 구체적인 지시체 없이도 적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신체에 새기고 무의식에 주입함으로써 체화된 적대의 전선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매카시즘의 사례에서 극명히 나타났듯, 부정적 감응을 자양분 삼아 유포되었던 적대는 냉전 시대 동안 미소 양진영의 대중들에게 두루두루 경험되는 공통의 사실이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대중 사이에 퍼진

5) 정규수, 『ICBM, 악마의 유혹』, 지성사, 2012, 20-27쪽.

6) 강준만, 『미국사 산책 7』, 인물과사상사, 2010, 제4장.

7) Brian Masumi, “The Future Birth of the Affective Fact: The Political Ontology of Threat,” M. Gregg & G. Seigworth(ed), *The Affect Theory Reader*,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0, pp.53-54. 마스무미는 9·11 이후 미국인들의 심성에 자리잡은 적에 대한 무의식적 공포와 불안을 예거하지만, 그 심적 구조는 냉전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동했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감응에 관해서는 최진석, 『감응의 정치학: 코뮌주의와 혁명』, 그린비, 2019, 24-29쪽을 참조하라.

이 같은 감응이야말로 공산주의든 자유민주주의든 이데올로기적 체제 경쟁의 밑바탕을 이루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불안 혹은 공포로 조장된 대중의 감응은 ‘적과 동지’에 대한 이분법적 이미지를 통해 나뉘어진다.<sup>8)</sup> ‘우리’의 가치를 부정하고 공격하려는 ‘그들’은 인간성을 상실한 괴물이며, 비인간의 형상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냉전 시대 한국의 반공교육이 북한 정권을 늑대나 이리 같은 동물의 이미지로 표상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 바, 현실의 객관성에 어긋나는 이 같은 이데올로기 교육의 목표는 아동뿐만 아니라 시민 대중에게 적의 부정적 이미지를 무의식적으로 각인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부각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성(humanity)이다.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그리고 보편적 사랑과 관용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인간성의 전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간성을 함양하는 긍정적 기능을 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비인간성을 지시하고 암시함으로써 적대의 정치학을 더욱 치열하게 가동시키는 장치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므로 인간성을 지향하는 어떠한 가치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정치적 무의식은 적에 대한 가공할 만한 왜곡과 억압, 폭력의 정치학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들에 유의하면서, 냉전 시대에 출판된 미국과 소련의 SF 소설 두 편에 대해 논의해 보자.

### 3. ‘우리’의 바깥, 외부를 상상하기 — 냉전의 문학전쟁

냉전은 정치와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큰 규정력을 갖지만, 그 문화적 기제는 거울효과를 통해 가중되면서 미소 양측의 내부 정치적 영향력을 조성하는 가운데 명확해 진다. 전자가 가시적인 국제정치학의 문제라면, 후자는 비가시적인 대중정치학의 문제라 할 만하다. 대중정치가 비가시적인 까닭은 사태의 표층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심층, 특히 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효과를 대신하여 적의 불특정성을 내세우고 이를 대중의 감응 안에 각인

8) 칼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김효전 옮김, 법문사, 1995, 31쪽 이하. 냉전의 국제정치학 역시 이 같은 적대의 정치학의 연장선에 있던 현상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냉전 시대의 자유진영에서 적이란 국경 바깥에 엄존하는 ‘그들’ 곧 소련이나 중국의 공산주의자를 가리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과 식별되지 않은 채 섞여 살고 있는 이질적 분자들, 곧 간첩을 암시했다.

문학과 영화는 특별히 이런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갖는 장르들이었다. 가령 탐정물의 주요 소재는 ‘우리’와 식별 불가능하게 숨어 있는 간첩을 찾아내 격멸하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심미적 쾌락과 애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만족시키고자 했다. 다른 한편,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던 장르는 SF였다. 과학소설의 형식을 통해 미래의 이미지를 조형하는 것은 이미 근대 문학의 오랜 관행이자 전통이었으나, 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그 양상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지구 밖에서 외계인들이 찾아와 지구인들을 식민화하거나 몰살시키려 한다는 음모가 그것이다.<sup>9)</sup> 냉전의 불안과 공포를 밑바닥에 깔면서, ‘우리’ 대 ‘그들’의 구도로 전개되는 이런 소설류에서 적은 비단 외계인일 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실의 적대자로 쉽게 치환되게 마련이다. 외계인과 간첩은 적의 이미지를 조형하는데 가장 자주 동원되었던 문화적 표상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소련의 몰락까지 이어진 오랜 동안 냉전의 문화전쟁이 언제나 동일한 형식으로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체제의 차이와 함께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긴 시간적 차이는 문화전쟁의 이미지 정치학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그것은 가시적이고 투명한 적대의 구성에서부터 불투명하고 비가시적인 적대의 방향상실에 이르기까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내부의 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주를 보여왔다. 또한 적의 규정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였는 바, 실로 이 같은 연구를 위해서는 통사론적이고 통계적인 방대한 노력이 필요하겠으나, 우리는 일단 1950년대의 미국소설과 1970년대의 소련소설 한 편씩을 통해 그 상이한 양상을 짚어볼 계획이다. 아래의 작품들을 선정한 이유는 그 대표성이라고 보다는 전형성에 있으며, 이를 통해 냉전의 문화전쟁이라는 전체 주제의 큰 그림을 소묘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9) David Seed, *Science Fi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40.

### 3-1. 적은 외부로부터 — 그들은 인간인가?

먼저 언급할 텍스트는 잭 피니의 『신체 강탈자들』(The Body Snatchers, 1955)이다. 냉전 문화 연구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작품의 하나로서 수차례 영화화되었고,<sup>10)</sup> 좀비물로 표징되는 21세기 문화현상과 나란히 거론되는 경향성의 출발점이기에 분석의 도마 위에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출판된 다음 해에 바로 돈 시겔에 의해 <신체 강탈자들의 침략>(Invasion of the Body Snatchers, 1956)으로 영화화되어 더욱 유명해진 이 소설은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 이후 풍요의 땅을 이루었던 미국에서 은밀하게 유행했던 정치적 편집증(paranoia)을 다루고 있다. 때마침 1950-54년 사이에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가 주도하는 매카시즘 열풍이 한창 불어 닥쳤고, 이는 미국 내에 적대 세력이 침투해 있고, 그들은 소련의 사주를 받은 간첩일지 모른다는 대중적 불안에 편승한 현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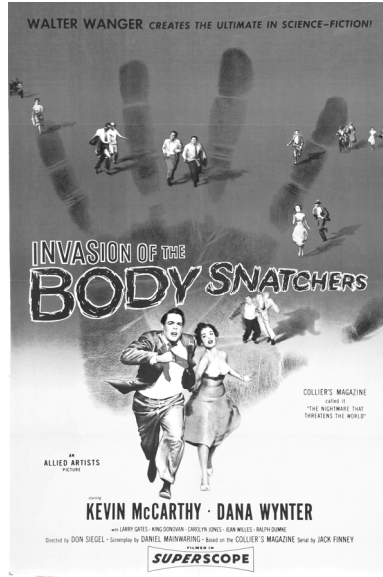
1976년의 미래 시점에서 시작된 소설은 주인공이자 화자인 의사 마일즈 보이즈 베텔에 의해 서술된다. 젊은 이혼남인 그는 이혼녀인 베키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녀의 요청에 따라 월마를 만나는데, 월마는 삼촌 아이라가 겉모습만 아이라일뿐 실제로는 다른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월마의 믿음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과거의 기억이나 현재의 습관, 태도와 몸짓은 물론이고, 작은 흉터나 신체적 특징의 모든 것에서 아이라는 이전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월마는 아이라가 “감정적으로 어긋나 있”고, 이는 그의 “안쪽이 다르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주장한다.<sup>11)</sup> 구체적으로 말해, 아이라는 인간적 감정을 느끼지 못하며, 바로 이 점이 월마로 하여금 아이라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을 갖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월마의 상황을

10) 최정민, 「냉전 이데올로기로부터 전염병의 서사까지: <신체 강탈자들의 침략>의 변주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11(3), 2010, 853-881쪽; Michael Hardin, “You Can’t (Re)make a Mother: Anxiety and the Cultural Shifts in Maternity in Invasion of the Body Snatchers (1956 and 1978) and Invaders from Mars (1953 and 1986),” 『씨네포럼』 14, 2012, pp.7-35.

11) 잭 피니, 『바디 스내처』, 강수백 옮김, 너머, 2004, 32쪽; Jack Finney, *The Body Snatchers*, Orionbooks, 1988. 이후 본문에서는 한국어판의 쪽수만 괄호 속에 표시한다.



망상성 신경증으로 간주하고 넘어가려던 마일즈는 그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주민이 다수 나타난 데 대해 의혹을 품고 조사에 착수한다. 그와 합류한 बे키 및 잭 부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이 알던 사람들이 본래 모습과는 다른 존재로 변형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무언가 다른 존재가 그들 행세를 하고 있고, 그 세력은 점점 확산되어 마을 전체를 장악하는 중이었다. 마일즈 일행을 포섭해 순순히 동화되기를 강요하는 세력은 외계인들로서, 우주로부터 날아온 포자(孢子)를 이용해 인간의 외양을 복



제하여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정복하려 든다는 게 사태의 진실이었다. 복제된 사람들은 의식을 상실하고, 외계 존재가 그 사람들을 본따 복제된 몸으로 살아가는데, 외형과 기억, 습관 등의 모든 점을 다 갖추었지만 단지 인간의 감정만은 복제할 수 없다는 게 유일한 맹점이었다. 이를 간파한 마일즈 일행은 격렬한 저항 끝에 마침내 외계인들을 지구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한다.

현대의 슬한 액션물과는 궤를 달리 하지만, 심리적 스릴러로서는 기묘묘한 흥분과 긴장을 자아내는 이 작품은 가시화된 타자로서 외계인을 내세우며 그들과의 대결을 그려낸다. 낯선 이계의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지구를 방문하고, 은밀한 침략을 감행하여 정복하려 한다. 그 그들이 복제한 인간의 몸은 정신 곧 인간성이 지워짐으로써 인간의 것이 아닌 육체로 변형된 결과물이다. 복제된 인간에게서 인간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듯, 간접적 전쟁으로서 외계인의 침략은 세뇌와 이간질을 통해 ‘우리’를 분열시키고 포섭하는 방식을 취한다. 무의식적으로 적들에게 정신을 포획당한 인간은 결국 죽거나 노예로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총이나 칼, 대규모 군대나 경찰이 동원되지는 않았지만 그 위협의 정도나 박진감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지점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점차 가시화되는 적의 이미지다. 외계인은 본래부터 인간의 형상으로 등장하지 않았다. 우주에서 날아온 ‘포자’라 언급되는 외계인은 단지 지구인의 모습을 통해서만 자신을 발현시킬 수 있는, 확정 불가능한 존재이다. 그것은 자신이 마주친 대상을 복제하며, 그 형상을 통해 최선의 생존방식을 찾아낸다. 지구에서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었다. 이 복제과정은 역겹고도 끔찍한 광경으로 묘사된다. 처음 그것은 식물의 꼬투리 같은 모양이었지만 차차 주변에 있는 인간의 뼈와 살을 모방하고, 최종적으로 그 인간의 형상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형상 없는 존재로부터 형상적 존재로 변화하는 것, 인간의 신체를 ‘복제’함으로써 ‘강탈’해 간다고 언급되는 외계 존재의 본질은 ‘괴물적’이라 불러도 좋으리라. 외계 존재의 괴물성은 그것이 흉측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개별 인간의 신체적 실존을 탈취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인간의 정체성을 가장하고 빼앗는 데 공포가 있는 것이다. 작품 후반에는 복제된 마을 주민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그들의 일상적 거동은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주인공들의 시점에서는 대단히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비쳐진다. 한 마디로,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한 비인간인 것이다. 여기에 이 소설이 갖는 SF로서의 특징과 냉전 문화적 함축이 들어 있다.

주인공들에 따르면 인간적인 것은 감정에 있다. 기억이나 지식의 영역으로 환원되지 않는 개성이 그것이다. 그들이 처음으로 복제된 존재를 만났을 때 책은 이렇게 말했다. “이목구비는 완전히 갖췄지. 입술도 있고, 코, 눈, 피부, 그 아래의 뼈대까지 완비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고나 할까. 주름도 없고, 섬세함도, 아무런 개성도 없는 거야. 보라고! [...] 마치 마지막으로 완성된 얼굴이 찍히기를 기다리는, 빈 얼굴처럼 보이지 않나!”(58-59). 마일즈는 그 얼굴에서 아무런 생명력도 느끼지 못했고, 이는 ‘인생 경험의 부재’를 반증한다고 단정된다. 즉 인간적 감수성의 누적적 표현으로서 인간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복제된 인간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자비하며 이질적인 얼굴”을 갖고 있으며,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올라 있지 않”다. 이는 그 존재가 인간과는 “그 어떤 공통점도 찾아볼 수 없는 눈”의 소유자임을, 비인간임을 입증한다(206).



특이하게도, 인간으로 복제된 외계존재는 마일즈 일행을 물리적으로 억압하거나 폭력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잠들면 복제될 것이란 낙관적 예측이 있는 탓이기도 할 테지만, 역시 이상스러운 노릇이다. 오히려 적대의 예리한 칼날을 버리는 것은 인간들, 마일즈 일행에 다름 아니다. “놈들은 우리를 노리고 있어”(158).

밀 벨리의 모든 집과 건물, 폐쇄된 공간 전부를 수색해야 해, 마일즈. 그것도 지 당장.” 책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모든 남자와 여자, 아이들도 검사해 봐야 해. 도대체 어떻게, 또 무엇을 검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일단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그러자마자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어 — 신속하게.” [...] “이건 국가 비상사태야.” [...] “육군이든, 해군이든, FBI든 다른 누구든 간에 — 최대한 신속하게 이 도시로 진입해야 해. 그리고 계엄령이든, 위수령이든 아니면 기타 무엇이든 간에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해 — 뭐라도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느닷없이 낮아졌다. “이걸 뿌리 째 뽑아내고, 박살내고, 짓밟고, 죽여야 해(164).

소설의 절반 이상을 읽은 독자들은 월마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신경증자에 불과한 게 아닌지, 그래서 망상으로 인해 선량한 이웃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초점화자인 마일즈의 언행을 통해 서술되는 사건의 전개는 타자들(마을 사람들)의 신경증에 대한 의심과 확신 사이를 오가고, 마침내 후반부에 이르러 그들이 외계인으로 밝혀지면서 의혹은 맹렬한 적대로 전환된다. 놀랍게도, 외계 침략자들은 마일즈를 비롯한 인간의 생존의지가 확고한 것을 깨닫고 지구에서 제 발로 철수하기로 결정한다. 대결의 의지가 굳건한 존재와는 싸워서 좋을 게 없다는 듯이. 그리하여 외계 존재의 침략은 사실상 미국 지방의 어느 마을에서 벌어졌다가 종식

되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마는데, 마일즈의 시점과 분리되기 시작한 독자는 역으로 더욱 강력한 의구심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마일즈 등이야말로 신경증적 편집증에 점차 몰입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진 않는가? 헨리 제임스의 명작 『나사의 회전』(The Turn of the Screw, 1898)에서 가정교사가 악령의 존재를 믿고 퇴마에 몰두했던 모습은 마일즈의 행태와 얼마나 같고 다른가? 지구를 정복하려는 외계인은 정말 이 마을에 찾아왔던 것일까?

간략한 줄거리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적과 동지의 구별은 존재와 부재에 대한 시차적 관점(parallax view)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안 보이는 적을 볼 수 있으려면 보이는 동지조차 부재 속에 넣어야 한다. 달리 말해, 적을 적이라 규정짓는다면 적은 존재하며 오직 적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적의 이면이 동지일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의구심은, 적에 대한 확신이 그만큼 불안정한 토대 위에 올려져 있음을 반증해 준다. 믿음은 언제나 이데올로기적 맹신에 의존해 있으며, 이데올로기는 불안과 공포라는 맹목적 감정에 뿌리를 두는 것이다. 요란스런 활극이 거의 없음에도 이 소설이 50년대 미국 독자를 잡아끌고 곧장 영화화될 수 있던 이유는 그 같은 무의식적 감응이 작동했던 탓일 듯하다.

### 3-2. 적은 내부로부터 — 우리는 인간인가?

스트루가츠키 형제는 정치소설을 기획한 적이 없었다. 자신들의 말대로, 『노변의 피크닉』(Piknik na obochine, 1972)은 당대 소련 사회에 대한 풍자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사회질서와 풍습을 통렬히 비판하는 책일지 모른다.<sup>12)</sup> 스트루가츠키 형제의 비정치성은 이 소설이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스토커>(Stalker, 1979)로 연출되었다는 데서도 짐작해 볼 만하다. 영화를 철학화하기를 즐겼던 타르코프스키는 자기 작품에서 정치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스토커>는 『노변의 피크닉』의 철학적 주제의

12) 아르카디 스트루가츠키·보리스 스트루가츠키, 「후기」, 『노변의 피크닉』, 이보석 옮김, 현대문학, 2017, 355쪽. Arkadii i Boris Strugatskii, *Piknik na obochine/Zhuk na muraveinike*, Deich, 2008. 이하 본문에서는 괄호 속에 한국어판 쪽수만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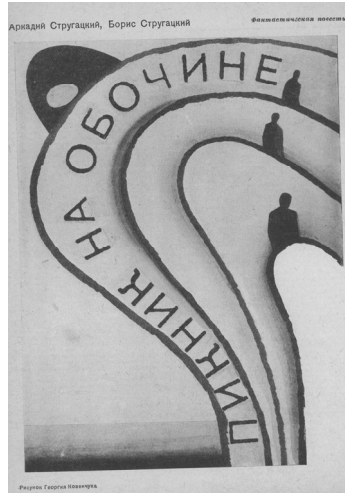
식을 집중적으로 영상화한 작품이고, 그만큼 스트루가츠키 형제의 작품이 정치적 서사보다 철학적 성찰에 근접해 있음을 시사해 준다.<sup>13)</sup> 물론 그들 형제의 소설은 혹독한 검열이 작동하던 시대의 산물이기엔 서사의 외양만으로 작품세계의 전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들의 비정치성 배면에서 온존하던 정치적 환경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비정치적 텍스트의 정치적 무의식에 관해 논의할 여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논지를 펼쳐보자.

20세기 후반의 어느 시점에서 외계인이 지구에 왔다가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진다. 외계인을 직접 만나거나 교류하진 않았으나 흔적을 통해 방문의 사실이 드러났고, 그 흔적들을 추적하여 연구하는 국제적 협력 체계가 마련되었다. 외계인과의 조우로 인해 특이한 성질을 띠게 된 물건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소가 그것이다. 연구소는 외계인과 접촉한 물건을 관리·보존하는 데 엄격하지만, 그럼에도 연구소와 직간접적인 거래를 통해 그런 물건을 외부로 밀반출하는 사람들이 있다. ‘스토커’가 그들이다. 이들은 변성된 물건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겪기도 하고, 밀반출을 금지하는 연구소와 경찰에 의해 체포되거나 목숨을 위협받기도 한다. 주인공 레드릭 슈하트는 스토커를 직업으로 살아가는데, 작품은 그가 각각 23세, 28세, 31세 때 겪었던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나머지 한 장은 스토커들과 거래하거나 추적·체포하는 기관원 리처드 누년의 이야기다).

일단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질문해 보자. 그들은 지구에 잠시 들렀다가 떠난, 이제는 흔적만 남은 부재의 존재들이다. 비가시적 타자들로서 외계인은 지구인에게 수많은 의문만을 남겨둔 채 사라졌다. 그들이 도착했다가 떠난 ‘구역(zona)’은 중력의 일반 법칙을 넘어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거나, 자연계의 논리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위험지대이다. 예컨대 ‘모기지역’이라 불리는 장소는 지구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며, 발을 딛으면 누가 세계 잡

13) “‘정신적 위기’ [...] 작품 <스토커> 역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봉인된 시간』, 김창우 옮김, 분도출판사, 1991, 244쪽. 다른 한편, 스트루가츠키 형제의 1969년작 『인간의 섬』(Obitaemyi ostrov)은 2009년 표도르 본다르추에 의해 영화화되었다. 이 작품은 악당들에 맞서 싸우며 권력의 음모를 폭로하는 청년 영웅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정확히 액션 모험극의 형식을 충실히 따르는 대중 엔터테인먼트에 어울리는 정치성, 즉 권선징악적 내용을 담고 있다.

아채는 것처럼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고 만다. 또한 구역 가까이 가면 누구나 말이 많아지고 성급해지며, 초조감에 휩싸여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게 된다. 구역에 들어간 스토커들 가운데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비일비재하고, 설령 구역의 물건을 갖고 돌아온다 해도 그것을 노리는 자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돈벌이가 구역으로 향하는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처음 구역에 갔을 때 슈하트는 거기서 찾아낸 여러 물건이나 경험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로 이끌 것이라 확신하기도 했다.



〈노변의 피크닉〉(1972) 초판 표지

이 도시는 미래로 뚫린 구멍입니다. 우리가 이 구멍에서 당신네 비열한 세계로 끌어 올리는 것들이 모든 걸 변화시킬 것예요. 삶은 달라질 거고, 바로잡힐 거고,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게 주어질 겁니다. 그게 당신이 말한 구멍이에요. 이 구멍을 통해 지식이 옵니다. 그리고 지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줄 거고, 다른 행성들에도 가고, 그 밖에도 또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을 겁니다(84-85).

물질적인 것이든 지적인 것이든 욕망하는 배대로 성취되리라는 기대가 구역에 있다. 유토피아에 대한 이상이 거기 있는 셈이다. 그것은 “당신네 유럽”으로 지칭되는 부르주아의 세계 반대편으로서, “낮에는 내내 일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고 밤에는 역겨운 매춘부의 침대로 파고들어 사생아들을 만들어 내고, 당신네 파업, 시위, 허울만 남은 정치”(86)를 구원할 수단이자 목적지라 할 만하다.



하지만 구역에서 도둑질한 물건들을 되돌려 놓던 과학자 키릴 파노프가 죽은 이후, 슈하트의 생각은 달라진다. 그는 “구역에 선의(善意)가 없”다고 믿게 되었으며, 오직 화폐 가치가 있는 물건만을 찾아내 판매하는 데 열중하게 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주인공의 변화는 곧 그의 도시인 하몬트 전체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처음 보는 택시 기사였다. 하몬트에 온 지 얼마 안 된, 코가 크고 여드름이 많은 젊은이로 자극적인 모험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부, 세계적인 영광, 뭔가 특별한 종교를 찾아 최근 하몬트로 쏟아져 들어온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자들은 택시 기사로, 종업원으로, 건설현장 인부로, 매음굴 경비원으로 하몬트에 눌러앉았다. 탐욕스러운데 재능은 없고, 불분명한 희망에 사로잡혀 시달리느라 세상 모든 일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끔찍한 절망 속에서 이번에도 자신들이 속았다고 믿는 자들이다. 이들 중 절반은 한두 달 버티고는 자신의 그 대단한 절망을 거의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저주를 퍼부으며 집으로 돌아갔고, 극히 소수는 스토커가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파악할 새도 없이 금방 죽어 버려 사후에 전설 속 영웅이 되었고, 이들 중 일부, 이들 중 가장 똑똑하고 학식 있는 이들, 연구실 조수라도 쓸모 있는 이들은 연구소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지만, 나머지는 정당과 교단, 상호조합 같은 모임을 마구잡이로 만들어 저녁마다 술집에 죽치고 앉아 의견 차이나 여자 문제로, 아니면 그냥 취해서 별 이유 없이 싸우곤 했다(164-165).

구역에서 찾아낸 물건들이 매매되면서 하몬트는 점점 뜨내기 외지인들이 출몰하는 도시가 되고, 타락의 온상으로 변해간다. 청년 시절의 슈하트가 유럽을 비난하며 그 원인으로 지목했던 악의 요소들이 그의 마을 하몬트에

서도 변성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젊은 혈기와 선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던 슈하트는 점차 윤리에 대한 믿음을 잃고 목적 없는 행동에 빠져들어 간다. 구역의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라던 킬의 만류를 무시한 이후, 그는 아내 구타를 속인 채 버브리지의 딸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기 내면의 양심을 저버렸던 것. 이렇게 그는 점차 애초의 신념을 망각하고 배신하는 삶에 빠져들고 만다. 가톨릭적 윤리와 욕망의 문제라는 인간학적 질문에 집중하는 타르코프스키의 주제가 엿보이는 지점도 여기다. 어쩌면 개인의 내면적 질문과 응답에 관한 형이상학적 주제로 작품이 수렴될 듯싶지만, 기실 이 소설을 냉전 문화의 배경에서 읽을 때 우리는 다른 해석을 만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적은 뚜렷한 이미지를 갖고 등장하지 않는다. 1950년대 미국의 SF가 보여주었던 외계 존재와의 대결구도가 1970년대 소련의 SF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재, 비가시성이야말로 적대의 가장 강력한 원천으로 작용한다. 대체 외계인은 어떤 이유로 지구를 방문했을까? 식민화든 말살이든 왜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은 채 떠난 것일까? ‘노변의 피크닉’이라는 제목이야말로 그 이해의 열쇠가 된다. 즉 우주의 가장자리, 변두리에 위치한 지구에 외계인은 그냥 잠시 들렀을 뿐이고, 마치 우리가 피크닉을 간 곳에 먹다 남은 부스러기나 쓰레기를 무심코 남겨두고 떠나듯 그들도 그랬을지 모른다(231). 다만 외계인의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보니 지구인은 그 잔여물이라도 옮겨줘려 한다는 것. 하지만 단지 그 뿐일까? 오히려 외계인은 자신이 남긴 물건들로 인해 인간 사회에 분열이나 타락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자멸의 길로 들어서리라 예상하진 않았을까? 다분히 음모론적 해석에 가깝게 들리지만, 실제 이야기의 전개는 이를 입증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슈하트와 구타의 아이는 통상적인 인지능력을 갖지 못한 채, 인간의 감각기제를 상실해 버렸다. 한 마디로, 비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갑자기 소름 끼치는 생각이 그를 내리쳤다. 이걸 침략이다. 노변의 피크닉도 아니고 접촉을 하자는 신호도 아니다. 침략이다. 그들은 우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의 몸에 침투해 그들을 자기네 형상으로, 자신들과 비슷하게 변형시키는 것이다(259).



인간성의 변화는 정체성의 변화를 수반하고,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와 어울릴 수 없는 과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아이들, 즉 미래의 세대는 ‘우리’와 다를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문화적 업적과 정체성의 표식들은 모두 부정되거나 소멸하고 말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노릇인가? 구역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은 ‘우리 안의 외부’로서 비가시적인 변형의 지대를 형성하고, 그로써 현재의 우리 자신과 미래 세대를 갈라놓는 공포의 지역을 상징하는 게 아닌가? 마치 간첩이 우리와 섞여 살며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도, 그와 접촉하고 동화됨으로써 다른 관점으로 세계를 보도록 세뇌되는 것 같이. 그렇다면 이 작품을 냉전 시대에 횡행하던 간첩 서사의 또 다른 판본으로 읽을 수 있을 법하다. 물론 냉전이 정점에 이르렀을 무렵에 유행하던 간첩 서사와는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분명 다르다. 앞서 지적했듯 내부의 적을 색출해 퇴치한다는 자기 긍정적 결말이 여기엔 나타나지 않는다. 적과 동지의 근대 정치학의 이분법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노년의 피크닉』이 출간된 1972년은 브레주네프 시대의 절정기로서, 소련이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미국과 나란히 경쟁을 벌이던 시대였다. 당시 모스크바는 공산권의 중심지로서 최상의 풍요와 번영을 자랑했고, 사회주의 문화를 활짝 개화시키고 있었다. 물질문명은 미국의 것이고, 소련은 가난한 이데올로기의 나라라는 통념은 1970년대의 미소 양국을 비교해 볼 때 부적절한 판단이다. 브레주네프 시대의 소련은 적어도 외적인 측면에서는 미국에 견줄 만큼 부와 향락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절은 건국 이후 소련이 쌓아올렸던 국부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도로 사용하여 완전히 소모해 버리기 직전의 시대이기도 했다.<sup>14)</sup> 겉보기에 소련은 세계의 절반을 지배했으나, 내부적으로 그러한 외관을 지탱할 동력원을 거의 상실해

14) 1970년대 소련의 ‘영광’은 경쟁체제로서 미국을 의식하여 국가의 외관을 장식했던 결과였다. 20년간의 브레주네프 집권기 동안 경제는 결정적인 몰락의 길을 걸었고, 이는 1980년대의 개혁과 그 좌절이라는 귀결을 예고하게 된다. 존 톰슨,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김남섭 옮김, 사회평론, 2004, 566쪽 이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경쟁자이자 거울상이던 미국과의 구조적 유사성이다. 특히 사회문화적으로 미국과의 상관적 경쟁관계는 이미 스탈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수잔·빅 모스, 『꿈의 세계와 파국』, 윤일성 외 옮김, 경성대출판부, 2008, 12쪽.

가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감지되고 있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검열장치들이 마치 스탈린 시대를 연상시키듯 촘촘히 세워지고 있었다. 요컨대 내부 단속과 자기검열, 상호 고발의 철저한 감시체제가 극도로 치밀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그 같은 상황에서 『노변의 피크닉』이 드러내는 모호하고 부정적인 결말은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는 결코 환영할 만한 것이 아니었을 성싶다. 이 작품이 정치색을 거의 띠지 않으며, 타락과 사치에 대한 반부르주아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출판이 적극 거부되었다는 사연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법하다.<sup>15)</sup>

세계의 절반을 호령하는 강대국으로서 자본주의의 타락한 문화 따위는 사회주의의 발전에 아무 장애도 될 수 없으리라 자부심의 이면에는 은밀하게 심어진 내적 불안이 있었다. ‘구역’이란 ‘우리’ 안에 침투한 적의 영역인 바, 어른들의 정신을 혼돈에 빠뜨리고 아이들의 눈과 귀를 감염시키는 ‘역병’에 다름 아니다. 구역에서 변성된 물건들을 가져옴으로써 이룩될 과학기술이 발전은, 당장은 달콤해 보일지 모르나 결국에는 모두를 병들고 파멸시키고 말 자본주의의 “침략”이 아닐까? 그러나 이 침략은 국경선을 물리적으로 돌파하는 통상의 사태와는 사뭇 다르다. 핵심은 적의 침략을 확증해 주는 가시적인 징후나 징표가 아니라 그에 대한 믿음이 남겨 놓고 발생시킨 영향력이다. 침공이나 테러와 같은 외적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모종의 변화, 즉 감응의 변화가 문제적이다.

“어떠한 방문도 일어나지 않았고, 방문은 일어나는 것만이 가능하다”(233). 밸런타인이 누넬에게 던진 말이다. 무슨 뜻인가? 외계인 혹은 적은,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두려워하는 한 직접 찾아와 침략의 문을 열 필요도 없다.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적의 것으로 간주되는 영향력이 ‘우리’ 사회에 파고들어 적의 ‘구역’으로 변성시키는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것으로도 침략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보이지 않기에 대항할 수 없고, 유혹적인 욕망의 대상이기에 뿌리칠 수 없는 적의 영향력은 결국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아이들을, 그리

15) 보리스 스트루가츠키, 「후기」, 『노변의 피크닉』, 347-348쪽. “이 소설은 당대 제도에 대한 공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았다. 사실은 오히려 지배적이었던 반부르주아적 이념을 따르고 있었다.” 355쪽.

하여 미래 전체를 장악하고 말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적대의 상상력이 또 있을까? 적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이 만큼 두려울 정도로 뻗어나갈 수 있을까? 자신만만하던 브레주네프의 시대는 미국과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을 빚는 가운데 소련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1980년대로 접어들며 몰락의 길을 열어버린 단초가 되었던 것이다.

#### 4. 휴머니즘의 비정치적 정치학과 냉전의 무의식

1950년대의 미국과 1970년대의 소련에서 출판된 이 두 작품은 여러 모로 많은 상이점을 갖고 있다. 특히 주제와 그 형상화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 데, 전자가 명확한 적을 설정하고 그것이 냉전 시대의 적성국을 인유하는 데 비해 후자는 불명료한 적의 형상 아래 주인공의 내적 심리를 드라마화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차이를 냉전적 상상력의 프리즘을 통해 끌어모으며 논의를 이어가 보자. 인간성에 대한 사상, 즉 휴머니즘이 우리의 주안점이다. 정치의 논리 밖에 있는 고귀한 가치로서 인간은 결코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여기에 있다.

『신체 강탈자들』은 냉전 초기, 미소 양국의 근비경쟁이 시작되고 체제경쟁이 본격화되던 시대의 산물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적에 대한 의심과 증오, 적대는 직접적인 공격의 명령어를 통해 형상화되어야 했다. 한적한 지방도시의 평범한 시민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임에도, 마일즈 일행이 국가와 군대를 금세 호명하고 대대적 전투를 상정할 수 있던 것은 그러한 시대적 심성에서 연유한 것일 터. 적에 직면한 개인은 국가를 호출하고, 국가에 일체가 됨으로써 공동체와 합일한다는 생각이 여기에 있다. 냉전을 근대 국민국가 체제의 연장선에서 바라볼 때, 개인과 국가의 이 같은 연관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국가는 국민(nation)으로 호명된 ‘우리’의 집합체이자 ‘우리’라는 동일한 인간성의 공동체이다. 국가에 속해 있는 한,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sup>16)</sup> 그렇다면 이 집단의 외부는

16) 1789년 발표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왜 착종적인 텍스트인지, 즉 인간과 시민이 왜 별개로 사유되고 또한 국가 안에서 합치되는지에 관해서는 Hannah

무엇인가? 그것은 비동질적인 비인간의 영역에 다름 아니다. 인간성을 갖지 않은 ‘바깥’의 존재, 인간성을 상실한 타자는 우리와 이질적인 존재이고, 따라서 격멸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외부의 적에 마주함으로써 내부의 동지들은 일체감을 갖고 통일된 형상으로 나타난다. 한 마디로 『신체 강탈자들』은 인간의 이름으로 비인간에 맞서 투쟁하는 휴머니즘의 승리를 선언하는 작품이다. 이로부터 미국-인간, 소련-비인간이라는 냉전의 이분법적 상상력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은 노릇이다. 적 혹은 비인간에 대한 폭력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도덕적인 정당성마저 획득된다.

『노변의 피크닉』은 좀더 복잡한 여러 겹의 전선을 포함한다. 일단 이 작품에서 적의 형상은 지극히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외계의 존재는 뚜렷한 적대의 가정 위에 설정된 게 아니다. 적은 경계 밖(‘외계’)의 존재로 설정되지만, 실제로는 경계 안(‘지구’)에 침투해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자 그 영향력(‘구역’)이다. 슈하트를 비롯한 하몬트의 거주민들은 구역의 사물에 관심을 갖고 이해관계에 접어들면서부터 윤리적 타락을 겪게 된다. 그것의 상징적 결과가 슈하트의 아들이 겪는 비인간화일 것이다. 결국 슈하트는 당국(‘공산주의 독재’)의 의심과 추적뿐만 아니라 도덕성의 부패(‘자본주의 문화’)라는 이중적 적대의 전선에 직면하고 만 것이다. 친공도 반공도 아닌 이러한 대답은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오랜 전통으로서 휴머니즘적 윤리에 비견될 만하다.<sup>17)</sup> 실제로 소련의 반체제 운동에서 재발굴되었던 인텔리겐치아의 전통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체제를 모두 부인하고 극복하려는 데서 윤리적 소명의 절정에 도달했으며, 이는 개성적인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휴머니즘적 목표를 위해 분투하는 영웅주의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슈하트가 버브리지의 아들 아서와 구역을 찾아 나서는 마지막 장면을 읽어보자. 그의 입장에서 아서는 구역 내의 위험지대를 알아내기 위한 안내인에 불과하며, 믿을 수 없는 존재다. 모든 내면의 욕망을 들어준다는 금빛구체를 발견하게 될 때 아서가 대체 어떤 소원을 빌지는 다분히 의문스럽다.

Arendt,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The World Republic Company, 1962, pp.290-292를 보라.

17) Marshall Shatz, *Soviet Diss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러시아 인텔리겐치아의 휴머니즘은 18세기 이래 계몽주의 전통과도 연결되어 있다.

천신만고 끝에 금빛구체에 도달한 아서는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하고, 이는 슈하트가 망각했던 청년시절의 윤리를 상기시켜 준다.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라는 것, 본래의 자신으로서 살면서 스스로를 욕망하라는 요구가 그것이다.

내 영혼을 들여다보라. 거기에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을 거라는 걸 난 안다. 그래야만 한다. 나는 내 영혼을 그 누구에게도 팔아넘긴 적이 없으니! 그건 내 것, 한 인간의 것이다! 당신 스스로 내 안에서 내 소원을 꺼내 보라. 내가 나쁜 것을 원할 리는 없지 않은가...! 이 모든 게 아무래도 좋지만, 그 녀석[아서 — 인용자]이 했던 말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니 — 모두에게 행복을 드려요! 공짜로 드려요! 기분 상한 채로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331)

구역의 사물이 불러일으킨 물질과 권력의 욕망을 버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요구는 휴머니즘에 대한 요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체 강탈자들』이 인간 감정의 진실성 곧 인간성을 고집했듯, 『노변의 피크닉』 역시 영혼, 행복이라는 인간성의 오랜 진리를 주제로 내걸고 있다. 진정 감동적인 주장이지만, 이 같은 휴머니즘이 갖는 부정적 이면을 우리는 이미 미국 SF소설에 대한 분석에서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소련의 SF에서 이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스트루가츠키 형제의 소설은 미국과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서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함축적으로 표명하는 듯 보인다. 당대의 체제, 즉 소련 사회로 비견되는 하몬트는 표면적 이데올로기와는 달리 자본주의의 문화적 부패에 깊이 노출되어 있다. 가령 구역의 물건을 매매하는 사회적 풍조와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는 개인의 무책임이 영혼 상실의 윤리적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구역은 그 같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타락을 형상적으로 상징하는 공간인 바, 온갖 사물들이 물리적 법칙을 벗어나는 왜곡된 모습들은 결국 인간과 사회의 내면적 몰락을 암유한다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요컨대 소련 사회의 비인간화와 소비에트인의 탈인간성이 역설적으로 휴머니즘의 회복을 요청하는 것이다.

휴머니즘에 대한 강조는 『신체 강탈자들』과 『노변의 피크닉』에 공통적

인 요소들로서 문학작품을 읽는 데 온당한 지침으로 사용될 법하다. 하지만 이 같은 온당성은 거꾸로 ‘무난한’ 해석이자 ‘피상적’ 독해의 반증일 수도 있다. 알다시피, 인간성에 대한 강조는 오랫동안 문학이 정치에 대해 가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판의 준거로 제시되어 왔다. 제도나 규범, 법 혹은 강권을 통해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작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고한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현실을 우회적으로 질타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 자체는 틀리지 않을지 모르나, 현실의 복잡다단함에 비추어 볼 때 그 현실의 산물인 문학 역시 그렇게 간단하게 윤리적 높이를 차지할 수는 없을 듯하다. 왜냐면 휴머니즘은 현실을 교정하고 인도하는 규제적 이념이기보다 현실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고 지지함으로써 현상유지의 방책으로 기능해 왔던 역사를 갖기 때문이다.<sup>18)</sup> 바꿔 말해, 휴머니즘은 누가 인간이고 인간이 아닌지를 결정하고 판결하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적과 동지의 척도를 사용하는 근대 정치학의 논리, 나아가 냉전적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1930년대에 접어들며 스탈린은 1인 독재를 완성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적들을 이념의 이름으로 제거해 갔다. 이른바 ‘전시 재판(show trial)’이라 불리던 모스크바 재판은 유럽의 지식사회에서 커다란 논쟁을 일으켰는데, 과연 현실 사회주의의 본향으로서 소련이 정의로운 심판을 하고 있는지 혹은 자본주의와 똑같은 권력놀음에 빠져 사기재판을 벌이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그것이었다. 좌파 지성인이던 사르트르와 메를로-퐁티는 스탈린을 옹호하며 정의로운 폭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불의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진보의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9)</sup> 사정은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전환되었다. 메를로-퐁티는 더 이상 공산주의에 지지를 보내지 않게 되는데, 휴머니즘을 가장한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sup>20)</sup> 애초에 메를로-퐁티가 전시 재판을 지지했던 것도, 북한의

18) 서구 근대성의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 기제로서 휴머니즘의 논리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최진석, 「휴머니즘의 경계를 넘어서: 근대 인간학의 종언과 인간 의 새로운 변형」, 『비교문화연구』 제41집, 비교문화연구소, 2015, 381-413쪽.

19) 모리스 메를로-퐁티, 『휴머니즘과 폭력』, 박현모 외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4, 146-147쪽.

20) 정명환 외,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전쟁』, 민음사, 2004, 133쪽.

남침을 비판했던 것도 모두 휴머니즘의 이름을 통해서였다. 프랑스 지식인의 휴머니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지만, 이 글의 맥락에서 문제적인 것은 후자의 경우다. 휴머니즘 앞에서는 어떤 폭력도 부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긍정적 폭력과 부정적 폭력을 구분할 척도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폭력에 대한 거부는 기실 가시적인 폭력과 비가시적인 폭력 사이의 구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폭력에 인간을 다시금 내맡기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관건은 폭력인가 아닌가가 휴머니즘인가 아닌가의 물음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투명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휴머니즘은 언제나 그것을 주창하는 자의 시선에 따라 좌우되어 왔던 이데올로기의 문제였던 것이다.

만일 휴머니즘이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이데올로기라면, 휴머니즘에 대한 논쟁은 그 결과이지 원인이 아닐 것이다. 서구 근대인들이 비서구인들의 인간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논쟁을 벌였듯이, 휴머니즘은 언제나 역사적인 개념이나 척도로서 ‘휴먼’의 자리에 있는 자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의 표지였던 까닭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들이 문학을 통해 표방하는 휴머니즘 역시 그것이 갖는 진정성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힘의 표시거나(『신체 강탈자』) 혹은 현실적 무력감의 토로(『노변의 피크닉』)에 대한 반증일지 모른다. 휴머니즘이 문학이 정치에 보내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라 상찬한다면, 그 도전의 이면에는 오직 휴머니즘이라는 (체제에 의해 승인된) 이데올로기 밖에는 정치에 항의할 도리가 없는 문학의 무기력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본 SF소설을 비롯하여 냉전 시대의 문학이 노정하던 휴머니즘은 궁극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압력과 문화적 무의식이 마주쳐 대결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정치적 무의식의 형성물은 아닐지 반문해 볼 만하다.<sup>21)</sup> 휴머니즘은 가장 의식적이고 보편적인 이념인 동시에, 그 이면이 텅 비어 있음을 지시하는 무의식의 기표인 것이다.

21) Fredric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Methuen, 1981, p.13.

## 5. 냉전을 넘어서, 시차적 독해의 (불)가능성을 위하여

냉전 문화에 대한 이전까지의 평가는 그것이 외부의 적과 함께 내부의 적을 상징하고 분쇄해야 한다는 대중적 (무)의식을 구축하는 데 봉사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원되었던 매체는 선명한 이데올로기적 표어보다 대중의 취향과 감흥에 직접 호소하는 장르들일 것인 바, 우리는 미국과 소련의 SF 소설 두 편을 함께 읽어보았다. 냉전 초기와 후기에 발표된 미국과 소련의 문학작품들은 하나같이 외부의 적을 상징하되 실제로는 내부의 적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으로 냉전적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냉전의 문학은 단지 프로파간다로 국한되지는 않는다. 시대양식으로서 그것이 시대와 조응하고 흥미로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적대의 서사뿐만 아니라 자기 긍정의 인식론적이고 가치론적 입지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감정과 개성, 인격 등으로 표상되는 휴머니즘이 그것으로서 우리는 이로부터 냉전문학의 무의식과 문학전쟁의 이면을 살펴보았다.

냉전 문학이 표출하는 휴머니즘을 다만 자기 폭로적 허구나 위선적인 제스처로 일반화해 버린다면 그 역시 온당한 평가가 될 수 없다. 냉전이 불러일으킬 전쟁과 폭력의 참화를 저지하고 새로운 시대 지평으로 나아가 수 있던 계기에는 분명 휴머니즘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지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휴머니즘이라는 무기가 누구의 손에 쥐어져 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누구의 손에 쥐어질 때 실제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는 데 있다. 맑스 식으로 말하자면 비판의 무기와 무기의 비판에 대한 성찰이 꼭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가시적인 개별적 폭력과 비가시적인 구조적 폭력의 구분, 그 가운데 휴머니즘이 무엇을 용인하고 합리화하는지를 실천으로 따져볼 수 있다.<sup>22)</sup> 이런 점에서 『신체 강탈자』와 『해변의 피크닉』은 다분히 증상적인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은 냉전의 문학적 상상력이 안출해 낸 시대적 지향을 보여주는 동시에, 거꾸로 그 시대의 압력에 의해 강제로 조형된 ‘사회적으로 상징적인 (무의식의) 서사’인 까닭이다. 냉전의 문학전쟁

22) 슬라보예 지젝,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현우 외 옮김, 난장이, 2011, 24쪽.



을 그 소재에 따라서도, 주제에 따라서도 곧이곧대로 읽을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는 텍스트의 무의식뿐만 아니라 시대의 무의식 역시 읽어내고, 그로써 양자의 타협적 형성물인 텍스트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냉전의 휴머니즘은 냉전의 산물로서 냉전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면서도 또한 냉전을 저지하고 종식시키려는 힘으로서 양방향에서 작용했다. 그것이 표현된 문학을 어느 한 방향에서 읽을 때 우리는 다시금 유사-냉전적 상상력에 이끌려 텍스트를 읽게 될지 모른다. 냉전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틈입구는, 따라서 그 양방향의 시차를 동시에 보려는 (불)가능한 시도에 달려 있다.

## ■ 참고문헌

- 강준만, 『미국사 산책 7』, 인물과사상사, 2010.
- 개디스, J.L.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정철 외 옮김, 예코리브르, 2010.
- 기시 도시히코, 『문화냉전과 아시아』, 김려실 옮김, 소명출판, 2012.
- 마루카와 데쓰시, 『냉전문화론』, 장세진 옮김, 너머북스, 2010.
- 메를로-퐁티, M. 『휴머니즘과 폭력』, 박현모 외, 문학과지성사, 2004.
- 벽-모스, S. 『꿈의 세계와 파국: 대중 유토피아의 소멸』, 윤일성 외 옮김,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 손더스, F.S. 『문화적 냉전: CIA와 지식인들』, 유광태 외 옮김, 그린비, 2016.
- 슈퇴버, B. 『냉전이란 무엇인가: 극단의 시대 1945~1991』, 최승환 옮김, 역사비평사, 2008.
- 스트루가츠키, A. · 스트루가츠키, B. 『노변의 피크닉』, 이보석 옮김, 현대문학, 2017.
- 울프, A. 『냉전의 과학』, 김명진 옮김, 궁리, 2017.
- 정규수, 『ICBM, 악마의 유혹』, 지성사, 2012.
- 정명환 외, 『프랑스 지식인들과 한국전쟁』, 민음사, 2004.
- 지젝, S. 『폭력이란 무엇인가』, 이현우 외 옮김, 난장이, 2011.
- 최정민, 「냉전 이데올로기로부터 전염병의 서사까지: <신체 강탈자들의 침략>의 변주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11(3), 2010, pp.853-881.
- 최진석, 『감응의 정치학: 코문주의와 혁명』, 그린비, 2019.
- \_\_\_\_\_, 「휴머니즘의 경계를 넘어서: 근대 인간학의 종언과 인간의 새로운 변형」, 『비교문화연구』 제41집, 비교문화연구소, 2015, pp.381-413.
- 케넌, G. 『조지 케넌의 미국 외교 50년』, 유강은 옮김, 가람기획, 2013.
- 피니, F. 『바디 스내처』, 강수백 옮김, 너머, 2004.
- 타르코프스키, A. 『봉인된 시간』, 김창우 옮김, 분도출판사, 1991.
- 하베이, B. 『러시아 우주개척사』, 김지훈 외 옮김, 북스힐, 2012.
- Arendt, 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The World Republic Company, 1962.

- Kodat, C. *Don't Act, Just Dance: The Metapolitics of Cold War Culture*, Rutgers University Press, 2015.
- Field, D.(ed) *American Cold War Culture*,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5.
- Finney, Jack. *The Body Snatchers*, Orionbooks, 2010.
- Masumi, B. "The Future Birth of the Affective Fact: The Political Ontology of Threat," M. Gregg & G. Seigworth(ed), *The Affect Theory Reader*,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10.
- Hardin, M. "You Can't (Re)make a Mother: Anxiety and the Cultural Shifts in Maternity in Invasion of the Body Snatchers (1956 and 1978) and Invaders from Mars (1953 and 1986)," 『씨네포럼』 14, 2012, pp.7-35.
- Shatz, M. *Soviet Diss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Seed, D. *Science Fi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 Strugatskii, Arkadii i Boris, *Piknik na obochine/Zhuk na muraveinike*, Deich, 2008.
- The Washington Post, "During Cold War, CIA used 'Doctor Zhivago' as a tool to undermine Soviet Union," 2014년 4월 5일. <http://apps.washingtonpost.com/g/page/world/the-cia-and-doctor-zhivago-dispatch-from-jan-2-1958/921/> (검색일: 2019.06.25.)

❖ ABSTRACT

Cold War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of SF  
: System Competition and Literature War between the  
USA and USSR

Choi, Jin-Seok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the themes of the “Literature War” during the Cold War between the USA and USSR in 20th century. As we know, these two opposite ideological state systems fiercely competed with each other, to decide which system would achieve superiority in globally. After World War II, the USA and USSR worked to secure rocket scientists who had worked for Nazi Germany, because they wanted to take the initiative in international politics. When the USSR put the artificial satellite “Sputnik” into the space October 4, 1957, it was not surprising that the USA could not repress its astonishment. Americans perceived that Soviet science and technology, was second to America’s until that point in time. After that, the USA and USSR competed on all fronts, including politics, economics, science, military power, and culture. What we call the “Literature War”, is the representative by-product of the Cold War. We can identify indirect traces of system competition, when we read literary works (especially SF) from those days. The Cold War wielded a strong influence over the world situation, so it is very important to identify symptoms of the political (un)conscious in literary works, which claimed to symbolize the pure imagination of humanism. That’s why we have to investigate SF from the period of the Cold War.

Key Words : Cold War, Literature War, Science Fiction, the Body Snatchers,  
Roadside Picnic, Political Unconscious, Humanism

- 논문접수일 : 2019. 05. 10
- 심사완료일 : 2019. 06. 01
- 게재확정일 : 2019. 06. 04

